

# 4/4분기 국내외 경기전망과 주류산업



박 시 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 目 次 ■

1. 가시지 않은 9.11 테러 후유증
2. 이라크 공격 대비와 유가 불안
3. 세계경제 디플레 우려와 금융불안
4. 미국 경기 회복 내년 이후에나 가능
5. 국내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6.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 지속 전망
7. 부동산 과열과 금리 상승 가능성
8. 주류소비 꾸준한 증가속 경쟁 심화
9. 고급화와 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돼야

## 1. 가시지 않은 9.11 테러 후유증

세계 경제의 심장부 뉴욕에서 9.11 테러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세계 경제는 아직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테러사태 발생 직후 세계 경제는 주요 증시의 동반 추락과 함께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 당시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란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다. 다행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금리인하와 감세정책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세계경제는 비교적 빠른 기간안에 테러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금년 1분기 미국경제가 6.1%의 고성장을 달성하자 테러사태가 경기회복의 전기가 됐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경기회복에 힘입어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성급한 기대였다. 미국 경기회복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사정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금년 1분기의 강한 회복세는 반짝경기로 끝나고 2분기부터 다시 침체국면에 빠져들어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엔론 사태를 비롯해 기업들의 회계부정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친데 덩친 격으로 미국이 이라크 공격에 나설 채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세계경제는 다시 테러전 악몽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가 치솟고 금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저금리 감세정책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9.11테러이후의 세계 경제 위기는 모면했지만 여전히 테러 휴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미국 경제가 기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세계 경제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테러직후 주가 폭락과 함께 급속히 얼어붙어 작년 4/4분기 1.3%의 저성장에 그쳤던 미국경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잇단 금리인하와 과감한 감세정책등에 힘입어 금년 1분기에 6.1%의 고성장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주택경기도 활기를 띠었다. 이같은 미국경기의 회복세는 유럽과 일본 동남아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세계 경제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금년 2/4분기들어 미국경제는 1.1%의 저성장에 머물러 다시 비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른바 이중침체(double dip)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테러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준금리를 네차례나 인하함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테러전 3.5%에서 1.75%로 대폭 낮아졌지만 경기회복은 반짝 경기에 끝나고 다시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 작년 말과 금년 초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들어 다시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경제도 사정은 비슷하다. 테러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제공조에 의한 경기부양책의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경제는 그런대로 건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경제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 2. 이라크 공격채비와 유가 불안

세계 경제가 테러휴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이라크 공격 계획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라크 공격전이 어떻게 전개되고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현재로서는 진단이 어렵지만 테러 재발을 막기위해 테러조직의 거점과 지원국가에 대한 선진공격을 불사한다는 '부시독트린'에 따라 이라크 공격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나름대로 준비된 전쟁이라는 점에서 석유공급 문제 등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충격이 전혀 없을 수는 어렵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불안요인이 아닐수 없다. 무엇보다도 석유수급 불안에 따른 고유가 가능성이다. 미국 백악관의 테러경계등급 상향조정등 국제정세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미 국제유가는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9월 10일 현재 영국 런던 국제원유거래소(IPE)에서는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전날에 비해 34센트 오른 28.83달러에 마감됐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지난 8월말 30달러를 넘어서 1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26.89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6월

초 27.58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냈다. 국제유가 시장에서는 미국 이라크 공습이나 테러조직의 유조선 공격등 전쟁과 관련한 돌발변수등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 즉 '전쟁 프리미엄'을 배럴당 5-8달러로 잡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감행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4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9월 11일 발표한 석유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8월중 상업용 석유재고가 하한선인 3억배럴 아래로 떨어졌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원유재고량도 전달보다 2천1천만배럴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증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수요가 급증하는 올 겨울에는 국제유가의 폭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석유 재고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설로 인해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줄인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의 원유보유국인 이라크공격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은 회복여부가 불투명한 미국은 물론 원유수입국인 아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사용이 다변화되어 과거 오일쇼크때와 같은 충격이 재현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유가상승에 따른 주름살은 적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 국제유가가 장기간 배럴당 30달러선을 유지하는 경우 세계경기 회복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가격 상승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소비심리를 냉각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기회복에 있어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경우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 및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국가들의 경우 석유수입 부담이 들어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 침체는 수출부진으로 이어져 이중고를 겪을 공산도 없지 않다.

금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와 국제곡물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밀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은 5년만의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이같은 곡물가격 급등은 올 여름 기상이변으로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취매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미국의 옥수수와 콩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10%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3. 세계 경제 디플레 우려와 금융불안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디플레에 빠질 가능성을 비롯한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파이낸셜타임즈는 9월 13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 고조, 전세계 주식시장의 약세, 경기회복지연등에 의해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금리가 30여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소비감소로 물가가 하락하는등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가능성이어느대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2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소식으로 3.96%까지 떨어진 가운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2개국으로 구성된 유로존의 국채수익률도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아울러 일본은 이미 깊은 디플레에 빠져 있고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가입후 수출가격 디플레 압력을 받고 있는 등 전세계

적으로 자산가격 거품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경기후퇴와 부채부담 증가에 몰리고 있어 디플레를 진정시킬수 있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도 낙관하기 어려운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9월 12일 발표한 국제금융시장안정 보고서에서 울들어 미국등 선진국의 지속적인 하락이 국제금융시장을 파괴적인 상황으로 몰고갈 만큼 충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시장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으로는 첫째 미국등 선진국에서 촉발된 투자자 신뢰 저하를 꼽았다.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가 주식시장에서 무더기로 돈을 빼가는 상황으로 악화되는 경우 유동성 및 신용위험이 빚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위험이 또다른 위험을 낳아 추가적인 추가하락이 불가피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인 매도대열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역자산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 예전만은 못하지만 세계경제회복도 지속될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두 번째 위험요인으로는 유럽 금융회사들이 통신 및 에너지업체들에 대한 대출로 입은 손실이 크다는 점이다. 손실이 확대될 경우 개도국에 대한 대출이 줄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전망이다. 세번째로는 미국 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국제금융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작년말 현재 미국으로의 순자본유입은 4천억달러에 달했지만 미국증시 부진과 달러 가치 하락등으로 유입세가 급감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외국자본 의존도가 높은 미국경제는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네번째 불안요인으로는 남미 금융시장이 여전히 취약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특히 남미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의 향후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브라질의 금융불안이 심화되는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MF는 이같은 금융불안 요인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경기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시장관찰과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등 선진국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부추킬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으로 지속해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개도국들도 거시 경제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4. 미국경기 회복 내년 이후에나 가능

테러전의 망령과 국제금융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에 전망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세계 경제전망에 관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02년 정례회의차 9월초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본부에서 열린 G10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과인데, 여기서 세계 중앙은행총재들은 당분간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회의에서 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미국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했으나 내년까지 3%성장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들의 금융시장 불안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는 내년에야 회복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지난해 말 세계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빠르게 성

장할 것이라던 예측에서 한 발 물러 선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경제도 더블딥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G10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의장인 에드워드 조지 영국중앙은행 총재는 미국경제는 현재 매우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며 회의에 참석한 누구도 더블딥에 대해 우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증시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복속도가 느리고 앞으로 더욱 둔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나왔다고 전한 것으로 미루어 더블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일부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세도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G10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악영향은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가시화되는 경우 세계 경제회복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올들어 미국경제는 1분기에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잇단 기업 회계부정사건 등으로 투자자 신뢰가 하락되면서 달러약세와 주가하락등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적은 편이지만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경기 회복 지연은 일본 유럽등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5. 국내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세계 경제 불안과 미국 경기 회복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경제는 8월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집중적인 정부지출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연간 성장률은 작년의 두배인 6.1에 이를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성장 추세는 설비투자 회복과 수출에 힘입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의 높은 성장률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8월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입은 철도 도로망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복구를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이 신속히 이뤄지는 경우 건설투자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재정지원 예산확보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확실시되어 4/4분기까지는 상당한 생산증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규모는 적어도 4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미국경제 회복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우리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이후 민간소비 지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하반기중에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등 내구소비재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중 국내총생산 증가율(6.1%)를 크게 상회하는 8.0%의 증가율을 보인 민간소비는 하반기에는 증가율이 6.1%로 둔화될 전망이다. 2003년에는 소비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요인이 예상되지 않고 있어 GDP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기별로는 소비지출이 큰폭으로 증가했던

2002년 상반기의 영향으로 2003년 상반기에는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로 회복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어 앞으로 국내 경기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9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중 소비자 전망조사'에 따르면 6개월후 경기 및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106.2로 2개월 연속 떨어졌기 때문이다. 6개월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와 생활형편을 평가하는 소비자평가지수 역시 102.1로 100선가까이로 내려앉아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가 100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 기대지수 가운데 생활형편과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지수는 각각 106.2, 109.6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으나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전월의 116.5에서 110.3으로 급락해 울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내년 초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관적 전망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설비투자의 경우 일부 전통업종의 설비과잉, IT산업의 대규모 투자마무리,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등으로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행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수출회복에 따른 경기회복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어 금년 하반기 설비투자는 약 8%선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03년에는 경기회복세의 지속, 견조한 수출증가전망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2001-2002년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부진했던 데 대한 상대적 영향으로 2003년 설비투자는 금년보다 높은 8.9%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경기 회복의 지연, 이라크 공격과 관련한 불확실성, 국내 소비증가세의 둔화 등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재검토하거나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 6.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 지속 전망

국내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수출은 금년 하반기에도 꾸준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미국 경기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출증가율은 국제수지기준으로 연간 6.6% 증가하고 이런 추세는 200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전망기관들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금년보다 내년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미국경제 성장률이 2002년 2.3%, 2003년 3.25%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OECD는 유럽지역의 성장률이 올해 1.25%에서 내년에는 3%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 위험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낙관할수만은 없는 측면이 있다.

수입은 국내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출보다는 높은 7.8%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2003년에는 시설투자회복과 함께 자본재수입증가가 예상되어 수입증가율이 올해보다 높은 11%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증가세를 웃도는 수입증가세와 서비스수지의 적자 확대를 반영해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43억달러로

〈표1〉 2002 - 2003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전년동기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연간	1/4	2/4	상반	3/4	4/4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내총생산(GNP)	3.7	5.8	6.3	6.1	6.3	5.9	6.1	6.1	5.6	6.0	5.8
총소비	1.7	3.5	6.4	5.0	9.1	9.2	9.1	7.1	8.1	7.8	7.9
민간소비	4.3	8.4	7.7	8.0	6.1	6.1	6.1	7.0	5.4	5.8	6.6
설비투자	9.7	3.2	7.4	5.2	9.1	9.1	8.3	6.7	7.7	10.2	8.9
건설투자	5.8	10.1	4.1	6.7	2.2	2.2	1.8	3.9	1.9	4.0	3.1
생산자물가	1.9	0.1	1.1	0.5	1.7	1.7	2.3	1.4	2.2	2.0	2.1
소비자물가	4.3	2.5	2.7	2.6	2.5	2.5	2.9	2.8	2.7	3.3	3.0
경상수지(억달러)	86.1	17.1	18.1	35.3	5.1	5.1	7.7	43.0	8.9	-16.4	-7.4
무역수지(억달러)	133.9	32.7	44.0	76.6	27.9	27.9	49.0	125.8	51.5	27.8	79.0
수출증가율	14.0	11.1	5.1	-3.2	16.2	16.2	17.3	6.6	8.5	6.0	7.2
수입증가율	13.3	12.1	7.8	-2.7	18.1	18.1	19.0	7.8	13.0	9.1	10.9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추산되고 하반기에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2003년에도 연간 7.4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전망되고 있다.

## 7. 부동산 과열과 금리상승 가능성

금년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내수둔화와 원화강세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3.8%로 낮았기 때문에 반사이효과로 금년 하반기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2.6%보다 높은 3%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연간으로는 한은의 물가목표 범위내인 2.8% 정도의 물가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물가 불안요인으로는 태풍피해에 따른 농산물 수급차질로 소비자물가가 부분적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으나 단기간에 그칠 전망이 지배적

이다. 또 국제유가의 상승추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물가불안이 될 수 있으나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 유가는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커 물가상승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아파트가격 폭등을 비롯한 부동산경기 과열이 물가불안의 최대요인이 되고 있는데, 강력한 투기대책으로 당분간 부동산 가격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6%선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가는 경우 물가는 다소 상승 압력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 안정, 원화환율의 절상추세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 2003년 소비자물가는 올해와 비슷한 3%선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리는 그동안 미국 경기의 불투명성과 채

권공급부족으로 인해 가려졌던 국내경제의 펀더먼트의 영향력이 점차 대두되면서 점진적인 상승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예금상품의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은행권과 투신권에 머물러 있던 자금이 자본시장의 직간접상품으로 환류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실물시장과의 괴를 좁히는 방향에서 장기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부동산과열이 저금리와 과도한 유동성공급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도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혀주고 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미국 경기 회복 지연등 달러화의 구조적 약세요인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운데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시장개입 가능성과 일본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맞물리면서 환율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달러화 수급사정을 반영해 연말로 갈수록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하향 추세를 보여 달러당 1,180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3년에도 미국의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기조를 보일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악화라는 구조적 달러화 약세요인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3년에도 경제 기초여건이 반영되면서 달러공급우위로 인해 환율은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에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50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8. 주류소비 꾸준한 증가속 경쟁 심화

주류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 소비재이다. 대부분의 소비재들이 경기동향에 영향을 받지만 특히 주류소비는 경기변

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내 주류시장은 외환위기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기가 견조한 회복을 보이면서 주류소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주류소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숙성기간이 긴 위스키를 비롯해 고급 주류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년 1분기 주류별 출고동향을 보면 소주 및 맥주 출고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78%, 1.26%증가에 그친 반면 위스키 출고는 32.08%나 증가해 주류소비가 위스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증가함대 비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류에 대한 수요도 고급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류 판매동향도 같은 추세를 보여준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숙성기간이 15년이상인 슈퍼프리미엄급 위스키 판매량은 총 34만 5000여병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3%나 증가했다.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고가양주는 발렌타인 17년산, 슈퍼프리엄급중에서도 최고급으로 꼽히는 발렌타인 30년산의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비해 한 단계 아래인 프리미엄급과 디럭스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류소비에서 나타나는 또 한가지 특징은 고급 위스키를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주류수입은 외환위기 직후의 극심한 경기침체를 반영해 급감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주류수입도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의 경우 위스키는 42.4%, 맥주는 83.7%, 포도주는 71.5%나 급감했으나 99년이후의 경기회복세를 타고 모든 주류수입이 큰폭으로 늘고 있다. 위스키 수요증가를 반영해 수입규모가 가장 큰 위스키의 경우 지난해 수입액은 2억



달러를 넘어섰고 올들어서도 높은 수입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포도주는 99년 133%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인 이후 계속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맥주 역시 지난 99년이후 매년 100%가 넘는 수입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원화강세등을 감안할 때 주류수입은 계속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류업계 입장에서 앞으로 주류소비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고급 수입주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큰 도전이라 할수 있다.

## 9. 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노력 지속되어야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 고급 주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류업계의 대응 방향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수요증가에 부응하는 주류 고급화와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을수 있는 브랜드 개발이다. 앞서 주류별 소비증가율에서 알수 있듯이 앞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고급위스키를 중심으로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시장확대를 외국 주류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주류업계의 주류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이 더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인당 술소비량면에서 세계적인 술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는 시장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주류기업들이 한국시장을 겨냥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술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외국 주류업계의 공세에 시장을 빼가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업계가 소비자 기호와 취향에 맞

는 주류개발 노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위스키의 경우 그동안 국내업계의 노력으로 브랜드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시장점유율 제고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 주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주류의 고급화를 위한 기술개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세계 시장을 겨냥한 주류브랜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주류시장에 대한 정보와 소비행태 등의 분석을 통한 품질과 맛 개발을 바탕으로 마케팅능력을 높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시장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주류의 세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주류는 더 이상 기피상품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국을 대표하는 주류산업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영국의 위스키, 프랑스의 포도주, 미국의 위스키와 맥주, 캐나다의 위스키등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주류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세계 시장개척을 비롯해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특정 주류에 전문화 특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계적인 주류 메이커들과 경쟁하고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대형화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국내 주류업계도 그동안 구조조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매출규모 및 기술개발 투자등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류업계의 영업이익률이 1961년이후 최저수준인 5.5%에 불과하고 금융비용과 환차손등을 감안한 경상이익률은 1%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세와 특별손실등을 감안할 경우

주류업계는 사실상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처럼 주류업계의 수익성이 낮은 것은 수입주류증가에 따른 매출부진에도 원인이 있지만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 것도 수익성 악화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주류업계의 부채비율은 18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증자, 채무동결과 출자전환등에 의해 자기자본이 크게 확충되었으나 앞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계 자구노력에 의해 부채비율을 더 낮추어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기술개발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류업계의 합병등을 통한 대형화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개방과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변화에 비추어 현상유지에 급급한 소규모로는 중장기적으로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주류업체와 품질, 가격, 마케팅, 브랜개발등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대형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주류업계의 이같은 구조조정 촉진하는 방향에서 정부차원의 주류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될 필요가 있다. 주류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蓋世功勞, 當不得一個矜字. 彌天罪過, 當不得一個悔字

세상을 뒤덮을 만큼 큰 공로도 '자랑 공(矜)' 자 한 자를 당해내지 못하며, 하늘에 가득 찰 만큼 큰 죄도 '뇌우칠 회(悔)자 한 자를 당해 내지 못하느니라.

- 채근담 -